

# 인삼농가의 경영구조와 수지개선 방안

박계홍(대전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 제 1 장 서 론

-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11월 14일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여 95년 WTO 출범 이후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은 2004년 말까지 3년간의 협상을 거쳐 새 무역질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 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에 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결정,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무엇보다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우리에게 중요한 농산물의 관세 감축이나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지만, 농수산물의 시장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
- 농산물 수출국들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 TRQ)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내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여 보다 낮은 수출장벽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야할 필요성과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강화하여 수입농산물과 국내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 인삼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이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WTO시대에 대표 농산물로 손색이 없음.
-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명성에 걸맞게 비교적 발달된 생산 및 가공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전매품으로 쌓아온 명성과 신용, 국가의 품질관리와 물량조절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음.
- 지속적인 성능과 제품 차별화 정책으로 저가 값싼 외국삼과 구별되는 마케팅을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제품개발등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하며 특히 인삼농가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우량인삼의 생산과 경작비를 줄이고 복잡한 유통단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본 연구는 인삼농가의 경영구조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삼농가의 경영구조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까지를 제시하고자 함.

## 제2장 인삼농가의 경영구조

### 제1절 인삼재배농가의 현황

#### 1. 주요국의 인삼생산 현황

인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여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인삼을 주로 소비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등지임.

'80년대 후반까지 전세계 인삼 생산량의 46%를 유지하던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39% 내외로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의 연간 평균 생산증가율 3.7%에 뒤지는 0.5% 만의 생산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80년대에 전 세계 생산량의 43%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중국은 '90년대에는 50%이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2%이상의 높은 생산 증가율을 나타내어 인삼 종주국인 우리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세계인삼생산현황(수삼기준)

(단위: M/T)

국 가	1987	1990	1992	1993	1997	연평균 증감률
계	31,166 (100)	32,948 (100)	35,017 (100)	38,152 (100)	34,456 (100)	3.7
한 국	14,424(46)	13,889(42)	13,508(38)	14,874(39)	12,259(32)	0.5
중 국	13,396(43)	15,536(47)	17,900(51)	19,200(50)	19,000(55)	7.2
일 본	534(2)	412(1)	326(1)	303(1)	167(5)	△7.2
미 국	2,356(8)	2,367(8)	2,379(7)	2,803(7)	1,080(3)	3.2
캐 나 다	456(1)	744(2)	904(3)	972(3)	2,950(8)	18.9

1) ( )내 숫자는 세계 총 생산량중 국별 생산량의 비율임

2) 자료: 한국담배인삼공사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고려인삼과 구별되는 *Panax quinquefolium*을 생산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미국 3.2%, 캐나다 18.9%로 한국을 능가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계 생산량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인삼 주 생산국은 한국, 중국 및 북미의 3각 경쟁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 2. 한국의 인삼생산

한국의 연도별 인삼재배 면적 변화는 '90년대 초반까지는 11,000ha 이상을 유지하다가 그 후 약간씩 감소하면서 '95년과 '96년에는 9,000ha 정도로 감소되어 가장 적은 면적을 나타내다가 '98년도 이후에는 다시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간 인삼 생산량도 '90년부터 '96년까지 10여 년 동안 12,000톤에서 10,000이하로 다시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삼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91년으로 15,132톤이었으며, 가장 적은 해는 '96년으로 10,147톤이었다. 그런데 생산량 감소정도는 지정포(6년근)가 '91년도에 1,927톤에서 '96년에 138%인 2,672톤으로 증가된 반면, 신고포(5년근 이하)는 '91년도에 13,205톤에서 '96년도에는 56.5%인 7,475톤으로 크게 감소 현상을 보였다.

<표 2-2> 연도별 인삼재배 면적 및 생산량

연 도	일반삼포		지정삼포		계		농가호수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90	8,955	11,619	3,229	2,155	12,184	13,774	36,404
'91	8,561	13,205	3,133	1,927	11,694	15,132	36,146
'92	8,074	11,459	3,590	2,049	11,364	13,508	30,809
'93	7,376	12,087	3,610	2,787	10,986	14,874	30,327
'94	6,373	11,276	3,750	3,016	10,123	14,292	30,500
'95	5,642	9,720	3,733	2,251	9,375	11,971	23,172
'96	5,506	7,475	3,434	2,672	8,940	10,147	23,304
'97	6,715	7,756	3,188	3,503	9,903	11,259	20,399
'98	7,447	8,137	2,902	3,341	10,349	11,478	22,170
'99	8,666	11,024	2,985	3,476	11,561	14,500	24,702
'00	9,811	10,939	2,634	2,725	12,445	13,664	23,011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도별 10a당 전국평균 생산량을 보면 (표 2-3)에서와 같이 신고포가 336kg에서 449kg 범위였고, 지정포는 396kg에서 565kg 범위였는데 최근의 생산량도 이 범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표 2-3> 10a당 생산량 변화

연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신고포	344	385	406	417	398	391	379	449	412
지정포	463	488	565	522	523	475	396	437	489

자료: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이 농산물 총 수출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표 2-4)은 '90년도를 정점으로 수출

액이 165백만 달러로 총 농산물 수출액의 20.8%를 점유한 반면에 '99년도에는 84백만 달러로 5.9%까지 크게 감소되었다.

<표 2-4> 인삼류 수출동향

구 분		연도별 수출현황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수출액	농산물	795	765	780	810	952	1,242	1,424	1,508		1,412	
백만(\$)	인삼	165	140	144	119	114	140	113	89	82	84	79
비율(%)	인삼	20.8	18.5	18.5	14.7	12.0	11.3	7.9	5.9		5.9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0.

위와 같이 농산물 수출액 중 인삼이 비율이 크게 감소된 요인은 일반 농산물의 수출액이 '90년도에 비해서 최근에 약 2배정도 증가된 반면에 인삼은 오히려 절반 정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표 2-5> 6년간 인삼의 연도별 소득률 변화 (단위: 천원, 4년생/10ha)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00
조수익	7,732	7,771	8,698	8,036	8,690	8,818
경영비	2,587	2,779	3,217	3,260	3,450	3,315
소 득	5,145	4,992	5,481	4,873	5,237	5,502
소득률 (%)	66.5	64.2	63.0	59.9	60.2	62.4

자료: 농수산물표준소득(농촌진흥청)

인삼의 연도별 조수익과 경영비 및 소득액의 변화를 조사해 보면(표 2-5),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00년에 조수익과 소득액은 증가가 미미한 반면 경영비의 증가는 크게 늘어나 인삼농가의 소득이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삼 생산 농가 수와 재배면적 생산량 및 수출과 소득액이 크게 감소된 요인은 인삼가격 상승률이 아주 저조하면서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가와 연작장해에 의한 우량 초작지 고갈 등이 주요 요인이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인삼재배시 경작 농가의 소득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되다가 99년과 00년에는 다소 회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인삼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6> 인삼의 10a당 생산비 (단위: 원, 4년 생/'00기준)

구 분		전국	
비 목 별		금액(원)	
조 수 입	주 산 물 가 격	8,787,249	
	부 산 물 가 격	30,904	
	계	8,818,153	
경 영 비	중 간 재 비	종 묘 비 종 자	425,645
		무기질 비료비	27,683
		유기질 비료비	333,016
		농 약 비	242,601
		광 열 · 동 력 비	44,065
		수 리 (水 利) 비	279
		제 재 료 비	758,806
		소 농 구 비	5,330
		대 농 구 상 각 비	116,010
		영 농 시 설 상 각 비	1,617
		수 리 (修 理) 비	23,773
		기 타 요 금	35,104
		계	2,013,929
		임차료 농기계·시설	80,283
토지	291,735		
고 용 노 력 비	929,509		
계	3,315,516		
자 가 노 력 비	1,289,814		
소 득	5,502,637		
부 가 가 치	6,804,224		
소 득 륜 (%)	62.4		

## 제 2 절 인삼농가의 경영구조

### 1. 인삼재배기술상의 현황 문제점

#### 가. 일반현황

○ 파종에서 수확까지 최소 4~6년이 소요되는 등 경작기간이 길고, 16~17개월 간 묘포에서 묘삼을 기른 뒤 본포로 이식하여 3~5년간 재배 후 채굴하는 이식법을 주로 이용. 노력비 절감을 위해 4년근, 논 재배를 중심으로 직파법을 일부 시도하고

있음.

○ 연작장해가 있기 때문에 재배지 확보가 어렵고 경영비 부담이 큼

· 윤작할 경우 논은 5년, 밭은 10년간의 휴작기간이 필요

· 연작피해 극복을 위해 이동경작(移動耕作 : 재배지를 따라 이주하며 경작)과 출입경작(出入耕作) 등을 활용

○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재배관리가 까다로운 반음지성 작물로 해가림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주로 경사지에 재배하므로 기계화가 어렵다. 병충해에 약하고 유기질비료 외에 화학비료 사용이 어려움.

○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 경작기간이 길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위험부담이 큼. 6년근 예정삼포의 경우 6년근 이전에 채굴하는 중도폐지율이 50% 수준이며 연도별로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며 시황에 따른 생산면적 조절도 어려움

○ 최근 우리 나라 인삼재배상의 문제점은 우량 초작지의 고갈,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 파종에서 수확까지 최소 4~6년이 소요되는 등 경작기간이 길고, 인삼재배는 16~17개월간 묘포에서 묘삼을 기른 뒤 본포로 이식하여 3~5년간 재배 후 수확하는 이식법을 주로 이용하나 노력비 절감을 위해 4년근, 논 재배를 중심으로 직파법을 일부 시도

○ 국제시장에서 우리 나라 인삼의 수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가격이 크게 상승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인삼재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 인삼산업의 경쟁력유지 및 강화가 어려운 실정임.

○ 우리 나라 인삼재배 여건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국내 인삼산업은 UR협정의 발효로 최소시장 개방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삼을 점차 국내시장에서 개방하여야 될 것이므로 외국의 저가인삼 수입으로 가격하락과 영농 채산성 악화로 생산 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홍삼포는 경기지역이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백삼포는 충북, 충남, 전북 지역이 재배면적의 78%를 점하고 있음. 홍삼포와 백삼포를 함께 보면 경기, 전북, 충남, 충북이 주요 생산지로서 대략 20%씩 차지하였으며, 중부지역이 주산지임을 알 수 있음.

○ 금산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이남 권역의 인삼재배는 4년생 백삼원료삼 또는 가공원료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단기·다수확 위주의 재배적 특성을 갖고 있음.

## 나. 재배기술현황

### (1) 재배기술상의 낙후성

- 97.7.1 이전까지는 전매사업으로 묶여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구지도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인삼재배에 관한 기술축적이 미흡함
- 기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주요내용은 홍삼재배 가공, 약리, 약효분야에 집중하였으므로 지역별 현지의 토성, 기후 등을 감안한 재배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재배가 됨
- 연작장해에 의한 재배지의 확보와 노력 및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논삼재배 및 직파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논삼재배와 직파재배의 기술개발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재배관련기술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단기·다수확 재배기술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음
- 연작장해의 예측 또는 예방이 불가능함
- 병해충의 예방과 종합적 방제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2) 인삼재배 예정지 및 관리

- 인삼은 연작장해가 극심한 작물로서 일차 인삼을 재배한 포지는 5년-10년 이상 타 작물을 윤작한 후에 재배가 가능함.
- 인삼을 연작할 경우 근부병의 발생위험이 크고 생산성이 낮아 상당수의 재배자들은 타지방에서 재배지를 임대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음.
- 토양의 비옥도 증가만을 고려하여 계분 등 비교적 속효성인 유기질비료 또는 시판되는 조제 유기질비료를 과용할 경우 황병발생 또는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인삼재배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3) 해가림구조와 자재

산지별 인삼해가림 구조는 아직까지 통로가 좁고 지붕이 낮아 통풍이 불량하며 3년근 이상의 고년근에서는 후행에 식재된 인삼은 광부족으로 광합성이 감소되고 뿌리의 생육이 위축되어 증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근년에 개발된 후주연결식 개량 해가림은 6년근 홍삼원료삼 생산을 위한 것임으로 이를 단기·다수확 재배에 이용하는 데에는 산지특성상 문제점이 있다.

- 통풍과 배습이 불량하며 작업의 생력화가 어려움.
- 고년생에서는 광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전후행간 생육 차가 큼.
- 단기·다수확 재배는 물론 직파재배를 위한 해가림 구조의 연구미흡

- 자재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내구성이 약함.

#### (4) 생력제배

국내생산의 최대 장애요인은 인건비과다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소비대중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기계화를 들 수 있는데 인삼경작용 농기계에는 이식기, 채굴기, 굴착기(해머와 타정기 포함), 파종기(묘포용)등이 있으며 최근 인삼연초연구원과 농기계 업체에서 공동 개발한 작판기, 작판정지기, 수확기, 상토석받기등이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수요의 피크기인 이식 및 일복가설,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인삼의 경작에는 4-6년의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범용성을 가진 기계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고 경작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농기계업체에서 개발비 투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경작규모에 따라 기계화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식기, 관리기 콤프레샤나 트랙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함
- 후주연결식 해가림 구조는 통로가 좁고 지붕이 낮아 작업의 기계화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제초작업을 위한 많은 노력이 소요되므로 무해 농약이나 기계화를 생력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 (5) 생산체제

전체 인삼생산비의 42%는 노임으로서 전체 작업과정중에 기계화된 부분은 경운정도이며 대부분의 작업은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은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노임은 상하는 반면 생산성은 저하되므로 생산비의 상승 및 소득과 경쟁력의 계속적인 감소가 초래되고 있다.

#### (6) 품종육성

인삼의 육종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육성된 품종의 종자증식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량품종의 육성보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1962년부터 우량계통의 수집선발 및 육성사업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KG101을 위시한 9개의 우량계통을 육성하였고, 그중 2계통은 우수하여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인삼의 육종체계, 선발방법, 세대단축기술 등 육종의 기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전자원으로 수집 및 보존도 빈약하다.

#### 다. 인삼제품의 유통



## (1) 인삼유통의 현황

2000년 7월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으로 통합되고 농협조직으로 인삼사업부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인삼산업의 돌파구를 농협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으나 통합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인삼공사에서 구매하는 6년근 수삼(전체 생산량의 15%수준)을 제외한 원료삼 생산량의 약 80%가 포전매매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포전매매는 통상 수확 2~4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한 칸(3자×6자)당 예상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나머지 20%는 인삼조합 또는 농가에서 백삼으로 제조하거나 수삼 형태로 판매됨

○ 인삼의 주 유통경로는 포전매매상 → 위탁상 → 중간 도매상 경로가 주를 이루며 '96년 전매제 폐지이후 인삼조합이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점유 비중이 미미

## (2) 수삼 유통의 문제점

○ 포전매매 방식으로 거래되어 제 값을 못 받는 등 생산농가의 거래 교섭력이 취약하며 100~200명에 불과한 포전매매상이 전국의 인삼유통을 주도하고, 유사도매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결여됨

○ 산지유통의 경우 국내 최대 인삼 집산지인 금산의 '수삼센터' 등에서 인삼 유통량의 80% 정도가 거래되며, 소비지는 경동시장과 대구 약령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됨.

○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유통단계가 5~6단계이며, 유통마진율은 40~70%로 추정되며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다단계이며 유통마진율이 과다함.

○ 생산자나 생산조직에 의해 유통과정이 시작되지 못하고 홍삼 원료삼 구매부분을 제외한 2/3 정도가 포전매매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바 정보력이 뛰어난 포전매매상이 산지유통을 지배하며 수확전에 면적당 또는 차당 가격을 결정하므로 유통정보에 어두운 생산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

○ 현재의 인삼 품질기준은 단순히 편급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인삼의 년근이나 년근에 따르는 외형적특성, 약효성분, 잔류농약의 종류와 함량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기준으로는 국내생산 인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중국산 고려인삼이나 미국삼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음.

· 인삼의 등급은 연근, 크기, 체형, 색택 등에 의해 세분화될 수 있으나 표준화된 규격·거래단위, 등급이 없이 관행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정확한 인식이 불가능해 신뢰감을 상실케 하고 있음

· 수삼의 포장은 75Kg(100차) 단위의 박스가 일반적이나 감모량 등을 감안한 덩 거리가 보편화되어 있음

- 계량단위가 일반 농산물과 다르고 인삼 종류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며 수삼은 1차(750g), 홍삼은 1근(600g), 백삼은 1근(300g)으로 거래
- 원산지 속이기 등 부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데 금산지역의 생산량은 총 공급량의 11%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전체 수삼 및 백삼의 약 80%가 금산에 집산되면서 원산지가 둔갑됨
- 인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공품들은 대부분 고가이며 이용계층도 제한적이고 대중성이 없어 수요에 한계가 있으며 수요확대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삼이나 건조삼의 경우에는 소매가격이 아주 높으며 가격의 차이도 매우 심하여 이용계층이 제한적임.
- 전국의 13개 인삼조합 공장에서 제조되는 홍삼과 백삼은 각기 품질규격이 다를 뿐더러 각기 독자적인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보여짐.
- 인삼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수삼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데, 원산지 속이기 등 부정유통이 성행하고 밀수된 중국산 인삼마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인삼 유통시장의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임.

#### 라. 인삼가공제품 유통

인삼가공은 크게 백삼제품으로 알려진 인삼차나 드링크등 인삼제품 및 태극삼, 그리고 그 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해 온 홍삼 및 홍삼제품으로 대별됨. 인삼의 원형을 유지하는 1차 가공품과 수삼 및 1차 가공품을 이용한 2차 가공품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 (1) 가공제품의 특성

- 단조로운 제품군: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인삼정 인삼분말, 각종 드링크, 인삼제품이 개발 시판되고 있음. 담배인삼공사의 오랜 세월 동안의 전매체제로 인해 홍삼제품에 대한 선호 인식이 강하며 여타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개발노력이 부족함. ○ 국내소비위주의 제품개발: 시판되는 가공제품들은 국내소비 중심으로 시판중임.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부족함.
- 소비의 대중성확보 미흡: 수요자가 제한적이며 신세대들이 기호음료나 건강음료로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음. 전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요청됨.

##### (2) 국내가공산업의 현황

- 제조업체의 난립과 품질저하로 국내소비 창출기능의 저조
-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 및 기술의 낙후로 수작업에 의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며 가공업체의 가동률이 매우 낮음. (백삼업체의 경우 연중 3개월)
- 드링크, 인삼캡슐, 인삼정, 인삼차를 생산하는 100여 개 업체가 난립하여 과열경

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삼제품업체의 평균가동률은 20-30%에 불과함.

○ 제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부족

그 동안 홍삼류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고 고가의 제품군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신제품 개발, 해외홍보와 판매촉진, 국내의 시장개척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삼경작 농가의 홍삼제조를 통한 소득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인적물적자원의 영세성

- 인적물적자원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설투자여력이 없음
- 홍보 및 판매촉진의 노력의 전무와 체계적인 전략수립 전무

○ 농협의 고려인삼창

고려인삼창은 농협의 인삼사업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원료용 수삼을 수매해 자체 제조하는 직할 부서임.

· 96년 7월 국가 독점 사업인 홍삼 전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무분별한 홍삼 제조로 인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인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 인삼을 재료로 한 각종 가공 제품 생산
- 고려인삼창은 세계 각국에서 잔류 농약 등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제조 업체로서는 드물게 잔류 농약을 비롯한 중금속, 인삼 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자체 브랜드인 '한삼인(韓蔘印)' 이란 브랜드네임을 통해 국내 인삼 경작자가 직접 생산한 인삼을 원료로 홍삼을 제조함.

라. 기술정보 및 교육

○ 인삼재배농가의 재배기술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도는 인삼조합에서 주관하여 인삼경작자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교육 및 지도의 기회가 많지 않고 그 내용 면에서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낮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 일반농민은 이러한 기술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인삼재배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움. 다만 홍삼원료삼 재배농민에 대해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재배기술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일부 실시하고 있음.

○ 재배기술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는 인삼연초연구원에 의해 거의 대부분을 수행해 왔는데 인삼산업이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농촌진흥청 및 지도소에서 인삼재배에 관한 연구와 기술지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인삼의 재배기술에 관한 전문서적은 인삼연초연구원과 인삼협동조합에서 몇 가지 발행된 바 있으나 모두 비매품으로 일반 농민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가 인삼재배 연구와 기술지도를 위한 준비가 체제를 정비 중에 있음.

#### 마. 온라인 오프라인의 조화 미흡

##### ○ 인삼 홈페이지 운영

WTO시대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인삼생산관련 정보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건강제품소비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세계적인 인삼의 물량과 가격등 수요와 공급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인삼생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기존 인삼관련 홈페이지도 내용이 부실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함

· 재배 유통 생산 소비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인삼사업본부나 농업기술센터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인삼정보센터운영이나 인삼정보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 인삼정보시스템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이용자교육,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함.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재배기술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제 3 장 인삼농가의 수지 개선 방안

#### 제 1 절 생산기술의 개선

##### 1. 재배법의 개선 및 표준화

인삼재배방법의 개선 목적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좋은 인삼을 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있음.

○ 인삼 주산지는 충남 금산, 충북 음성·괴산, 전북 진안 등 중부지역과 경기 포천·이천 등 북부지역으로 구분됨, 4년근 백삼 원료는 중부지역(금산, 진안)에서, 6년근 홍삼 원료는 북부지역(포천, 이천)에서 주로 생산

○ 최근에는 연작장해로 휴전선 일대 청정 유희지와 백령도 및 전남 해남 일대 등에서 새로운 산지가 개척되고 있음

○ 인삼재배 농가수는 '99년 기준으로 25천 호 (전체 농가 중 1.8%)이며-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400평 규모로 영세한 수준임

○ 인삼생산량은 '91년의 15,132톤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9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인삼 생산량: '99년 14,500톤)

##### 가. 단기 다수확 재배기술의 확보

○ 최근 인삼재배는 4년생 백삼원료삼 또는 가공원료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단기·다수확 위주로 재배하는 경향이 많아 단기·다수확 재배기술의 개선과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단기·다수확 재배기술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재배기술의 차이에 기인함으로 재배기술의 개선만으로도 인삼의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나. 논삼 및 직파기술의 확보

논삼재배와 직파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논삼재배와 직파재배의 표준재배법을 개발하여야 함.

- 단기·다수확 재배기술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 논삼재배 및 직파재배의 표준재배법 개발
- 연작장해의 예방 및 진단체계의 수립

#### 다. 예정지 진단기술개발

인삼은 파종 또는 이식 후 3-5년 후에 수확하므로 파종전의 예정지 관리는 통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물리성을 개선함으로 재배지의 선정과 관리가 중요함.

#### 라. 청초대체 녹비작물 개발

○ 인삼 재배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인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정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한편,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예정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토양의 경도를 저하시키고 통기성, 배수성, 보수력을 증가시켜야 함.

○ 인삼재배용 퇴비(청초)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나 노동력의 부족과 청초 구입에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대체하거나 효과적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의 개발과 함께 재배기술, 예취시기 및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예정지 관리를 해야함.

#### 마. 인삼의 답전윤작재배에 의한 연작장해 회피

○ 연작장애의 회피는 인삼의 답전윤작재배로 일정 부분 회피가 가능하고 평탄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작업기계의 이용과 재배생력화가 용이하며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절감의 여지가 큼.

○ 따라서 인삼의 답전윤작재배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수확량 증대를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배체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배기술의 교육, 연수 및 기술지도가 수반되어야함.

### 2. 해가림 구조의 개선과 자재의 표준화

○ 인삼산지별 인삼재배 농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해가림구조는 전행과 후행방법에

따라 식재된 인삼의 생육과 수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며, 자재가 표준화되지 않아 투광율, 강도 및 내구성이 상이함.

- 후주연결식 개량 해가림 구조가 개발되어 6년근 홍삼원료삼의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25%의 증수도 기대할 수 있음.
- 4년생 백삼원료삼 및 가공원료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단기·다수확 재배를 위해 이에 적합한 해가림 구조의 개발이 필요하면 직파재배의 경우에도 역시 최적 해가림 구조가 개발되어야 함.
- 해가림 자재를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써 우량자재의 생산과 공급 및 생산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조립경비의 절감이 가능할 것임.

### 3. 인삼생산 체제 및 작업의 생력화(기계화)

전체 인삼생산비의 42%는 노임으로서 전체 작업과정중에 기계화된 부분은 경운 정도이며 대부분의 작업은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은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노임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성은 저하되어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짐으로 소득감소와 경쟁력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인삼의 생산비중 각종 노력비가 생산비의 54%정도이므로 기계화 정도에 따라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최근 한국인삼연초연구원과 농업기계회사와 공동으로 10여종에 이르는 작업기계를 개발하였는데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야함.
- 후주연결식 해가림 구조는 통로가 좁고 지붕이 낮아 작업의 기계화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계화를 위해서는 경작방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임.
  - 작업기계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보급(조합, 농업기술센터)
  - 재배규모가 적어 작업기계사용의 어려움 → 중대형 작업기계의 공동구입 및 이용
  - 작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의 지속적인 개선(농촌진흥청 기계화 연구소)
  - 경작방법의 표준화(이랑 및 해가림 구조의 개선)
  - 제초의 생력화를 위한 연구

### 4. 병해충 예찰과 종합적 방제

- 인삼은 식물학적 특성상 병해충의 피해를 받은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병해충의 방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함.
- 벼를 위시한 주요 작물에서와 같이 농촌진흥원이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 병해충 예찰사업을 실시하여 재배농민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의 병과 해충에 대한 종합적 방제체계를 만들어 종합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방제와 인삼의 안전재배가 가능할 것임.

· 특히 인삼의 병해충 방제는 재배농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약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며, 사용되는 약제도 다양하기 때문 재배농민이 적기에 적절한 농약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인삼재배농가는 특성상 원거리 경작이 많고 재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인삼사업본부나 농업기술센터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인삼정보센터운영이나 인삼정보시스템개발이 시급함.

○ 인삼연작장해의 주원인은 근부병 발생이며 예정지관리 만으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 연작장해 진단방법을 개발하여 예정지 선정시에 연작장해 진단을 실시한다면 연작장해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인삼 병해충 예찰사업의 실시 및 예찰정보의 제공
- 인삼의 병해충에 대한 종합적 방제대책 수립
- 경작지가 좁은 우리 여건상 연작장해 극복은 인삼경쟁력강화에 매우 긴요함

## 5. 품종개량과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삼의 육종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육성된 품종의 종자증식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량품종의 육성보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1980년대에는 KG101을 위시한 9개의우량계통을 육성하였고 그 중 2계통은 우수하여 품종으로 등록하였으나, 인삼의 육종체계, 선발방법, 세대단축 기술등 육종의 기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유전공학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전자원 확보 → 우수개체 및 특성개체의 지속적인 수집과 특성검정
- 육종기술의 개발 → 선발기술개발, 효율적인 육종체계 수립
- 품종육성 및 보급 → 신품종의 지역적응성검토, 종자보급체계 수립

## 제 2 절 인삼경영의 혁신

### <경영마인드의 혁신전략>

◇ 농업경영이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 내지는 기법, 기술이므로 경영의 혁신을 위하여는 사회 경제적,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인 혁신이 병행될 때에 그 효과가 크게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중 생산기술·경영방식·경영관리 등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각각의 농업경영체로 부터 그 장점만을 배워 자신의 농가경영에 합리적으로 응용하여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농업적 벤치마킹이 필요함.

◇ 인삼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 구조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농가간에 경영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농업

의 주체인 인삼농인들의 경영혁신 노력이 가장 필요한 때임.

### <인삼산업의 경쟁전략>

- ◇ 원가우위 전략: 동일한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생산비의 절감, 인건비의 감소, 기계화, 낮은 토지이용비용, 낮은 유통비용
- ◇ 차별화 우위(브랜드) 전략: 다른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요된 원가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여타 건강식품보다 효능, 브랜드, 디자인, 광고, 서비스, 품질의 우위)
- ◇ 집중화 전략: 집중전략을 통해서 인삼의 고객 층을 시장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전략(다양한 유통기관을 통해서 소비자가 편리한 곳에서 인삼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의 용이성)

## 1. 안정적인 인삼 생산기반구축

### 가. 인삼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대책

(필요성)

- 경작지 감소로 호당 경작규모가 영세하며, 기계화률이 낮아 노동력의존 심각함.
- 높은 생산비로 생산농가 이탈이 심하며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 연작장해로 인한 경작지 제한과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잔류농약 가능성 등 품질경쟁력 하락

(대책)

- 호당 경영규모 확대로 최소한 현 재배면적 확보,
- 영세농 이탈유도와 정예 삼엽농을 육성
-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
- 양질 묘삼과 유기질비료 및 인삼전용 무공해농약 개발과 보급 확대

### 나. 경작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

- 10a당 생산비중 농기계비 0.8%, 노력비 40.6%점유(벼농사의 경우는 농기계비는 5.0%, 노력비 35.6%점유)함으로 인삼전용 농기계 보급으로 노력비 및 생산비 절감
- 농업구조조정 자금지원에 의한 삼포규모 적정화 사업추진 및 신규 기존경작지 정책자금지원 확대, 조합에 의한 대단위 인삼 생산 단지 조성

### 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계화 영농 정착

(필요성)

- 호당 경영규모가 영세(0.27ha)하여 기계화가 지연되고, 노력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생산비로 연결되므로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 및



수출경쟁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됨.

(대책)

- 인삼생산의 구조조정(호당 경작면적 확대)을 통하여 고효율의 생산기반을 구축
- 인삼전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으로 일복구조(반영구적 지주목, 관수시설등)현대화 추진 및 직파재배, 생력재배도모

#### 라. 현재 국내 인삼 생산기반의 강화

(필요성)

○ 대내적으로는 재배적지 감소로 고년근·대편급 원료삼 생산량이 감소하여 고려인삼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경영비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 후계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삼과 화기삼의 영향으로 동남아 수출시장이 크게 잠식당해 인삼제품 소비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수요가 부진한 상태임

(대책)

○ 고려인삼은 세계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전략품목이며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농산물로 향후 생산기반의 유지·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 저리의 생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간 경작에 따른 가격불안과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

· 수출부진 속에서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고년근·대편급의 고품질 원료삼 생산 장려

○ 품질등급의 확립과 등급별 가격차 확대,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품질인증제 실시로 품질향상

## 2. 유통부문의 혁신

### 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인삼 유통구조 재편

(필요성)

○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포전 매매상들이 주도하는 현재의 인삼 유통 구조 아래에서는 원산지 둔갑이 관행으로 고착되어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유통 효율화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대책)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수삼 취급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으로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사업의 확대가 긴요함.

○ 물류센터를 통한 계통출하 시스템 가동으로 생산능가의 안정화 도모: 수매비축

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포전매매의 근절

#### 나. 품질기준의 확립과 표준화

- 거래등급 표준화와 불법유통 방지 등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연근, 크기, 체형, 선택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된 관행적인 거래등급을 표준화
-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중국산 밀수인삼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매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수삼은 생산기간이 길고 저장성이 약하며 주 수요자가 일부 가공업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

### 3.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가. 국내 시장 확대전략

인삼수요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주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는 신세대들이 찾을 수 있는 제품개발과 마케팅 노력이 절실함.

(필요성)

- 단조로운 제품군
- 국내소비위주의 제품개발
- 소비의 대중성확보 미흡 : 수요자가 제한적이며 신세대들이 기호음료나 건강음료로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음. 전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요청됨.
- 영세 제조업체의 난립과 품질저하로 국내소비 창출기능의 저조
- 인적물적자원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설투자여력이 없고, 홍보 및 판매촉진의 노력과 체계적인 전략수립 전무

(대책)

인삼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삼가공산업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함.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삼 종주국의 지위 고수
- 인삼의 효능규명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려인삼의 성가보전
- 인삼가공제품의 포장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수출 및 시장확대
- 삼제품의 특성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수삼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하므로 부패가 쉽고 원거리 판매가 어려우나 진공포장방법 등의 개발로 유통기한 늘려야함.

#### 나. 해외시장확대 전략

##### (1) 해외시장별 차별화 전략

- 북미, 유럽 :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 아시아·중국 : 인삼차, 과자 등

- 일본 : 인삼정, 인삼차 및 드링크 음료 등
- 인삼음료의 특유한 맛이 동양인에게는 친숙하나 미국인에게 판매되기엔 쓴맛이 너무 강함

(2) 시장 세분화 전략

- 성분함량에 있어서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맛을 첨가하여 인삼 맛을 최소화할 필요
- 기존 인삼음료 고객층과 새로운 고객층으로 목표시장을 이분화
- 기존층에는 특효약으로서의 인삼의 효능을 강조한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 잠재고객에 대하여는 가벼운 건강음료로 접근하면서 이에 맞는 인삼향 건강드링크 개발 (예, 인삼 맥주, 아셈인삼주)

4. 기술정보 및 교육

가. 정보유통의 원활화

-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인삼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지원하고, (유통지원시스템)
- 인삼생산과 관련된 생산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고 (생산지원 전략정보 시스템)
- 인삼제품의 효능과 우월성, 활용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Web사이트 운영주체가 속히 선정되어야 할 것임.

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지원강화

(필요성)

- 금산인삼 시장종사자들에 대한 정보활용조사에서 산지동향 및 가격정보는 거래선(응답자의 87.5%)에서 얻고, 인삼관련단체로부터 12.5% 정도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왜곡되기 쉽고 정확한 정보도 전달이 용이치 않다.
- 인삼의 해가림구조를 위시한 재배기술 개선을 위해 방법과 생력재배를 위한 각종 기계에 대한 정보가 재배농가에 보급되지 못하였던 것은 원활한 정보유통체계를 갖지 못한 원인임.

(대책)

-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Web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운영창구를 마련해야함(교재개발 및 Cyber교육 시스템 개발).
- 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창구는 농업기술센터 인삼재배에 관한 연수와 기술지도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함.

5. 수요촉진과 약리와 효능 홍보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필요성)

- 필자가 면담한 인삼담당 공무원과 경작자들의 대부분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케팅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
- 인삼의 약리·효능에 관하여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호의적이나 정확한 인삼의 약리·효능에 대하여서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지식만을 갖고 있음.
- 신세대는 인삼에 대한 정보가 무지한 상태이며, 취향이 서구적이며 선호도도 없음.

(대책)

- 인삼의 약리·효능 및 이용에 대한 Cyber상의 홍보강화
-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신세대 취향에 맞는 홍보와 제품개발
- 중간 유통단계의 축소에 의한 소비자 가격의 저하와 대중성 확보
- 품질기준의 확립으로 국내생산 인삼의 신뢰성 확보와 외국삼의 효과적 규제
- 대중성이 높고 저가인 인삼 가공품의 개발로 수요의 확대

## 제 4 장 결 론

농산물의 생산은 타 생산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기상조건이나, 생장조건, 병해충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크게 영향을 받아 자원사용량과 생산량간의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인삼은 생육기간이 길고, 기후와 토양조건에 의해서 생산량변동이 매우 높아 농산물 중에서 가장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작물이다. 그런데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충분하지 않고, 시장환경적응도 어려운 일이다. 인삼농민과 인삼관계당국이 외부 여건인 국내외 소비자를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내부여건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내부혁신이란 첫째, 원가우위 전략으로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며 둘째, 차별화전략으로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요된 원가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이며 셋째, 집중화 전략으로 인삼의 고객층 시장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전략이다. 내부 혁신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여건이 변화해도 적응력을 높여 주는 생존전략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할 문제이다. 이제 인삼산업이 농림부로 이관되고 인삼협동조합이 농협과 통합되어 제도적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인삼산업종사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점 돕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정확한 수급예측에 의한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삼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업농에 의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가공산업 활성화와 인삼소비 계층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

여섯째, 인삼수출의 증대를 위해선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이다

일곱째, 생산기술과 제품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현호, 인삼재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산군농업기술센터, 1999.  
목성균, 우량인삼의 다수확재배, 한국인삼연초연구원, 1999.  
서현, 이한주, 인삼산업의 현황과 농협의 과제, 농협중앙회, 2000. 11.  
이광원, 경영기법을 활용한 인삼경작, 충남농업기술원, 1999.  
이동필, 인삼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금산군청, 1998.12.  
조재성, 인삼재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산군청, 1998.12  
신영준외, 고려인삼의 세계화 추진전략, 대전대학교, 1997.12.  
진안군청, 진안인삼산업육성방안, 1999.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최신 고려인삼, 1996.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년도  
<http://www.nonghyup.com/>  
<http://www.maf.go.kr/>  
<http://www.kgtri.re.kr/>